

[북 스]

어린이 책꽂이

▲올빼미야, 넌 어떻게 사니?=올빼미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어린 금눈쇠 올
빼미가 엄마 새와 아
빠 새를 떠나 혼자 힘
으로 살아가고, 짹을
만나 가족을 이루기
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주인공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사
건들을 통해 금눈쇠 올빼미의 생태를 관
찰할 수 있다. <소년한길·1만원>

▲우리식탁 지끼기 프로젝트-고추며고
맵맵(전4권)=건강
을 해치는 유해식단
으로부터 어린이들
을 보호하기 위해 펴
낸 '우리 식탁 지끼기
프로젝트'. 우리 농산
물의 우수성 등을 알
린 '아이들이 돼지로 변했어요', '고추며고
맵맵', '꼬마 요리 천재 산해와 진미',
'지구를 지키는 생명의 수호천사' 등 4권
으로 구성됐다.

<애니북스·각 5천900원>

▲네버랜드 옛이야기 그림책-팔죽 할
멈과 호랑이=조상
들의 지혜와 슬기를
배우고 상상력을 키
울 수 있는 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옛 이야기
들을 풀은 시리즈,
팔죽을 잘 쓰는 할머
니를 고피하는 나쁜 호랑이를 알밥, 자라,
멍석, 지게가 힘을 합쳐 혼내준다는 교훈
적인 이야기이다.

<시공주니어·8천500원>

▲피카소 이야기=르네상스시대의 미
켈란 궤로에서부터
피카소에 이르
기까지 세계적인
화가들의 생애와
작품을 다룬 어린
이, 청소년들을 위
한 화가 시리즈, 스페인이 낳은 현대미술
의 거장 피카소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작품세계 등을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룸·9천700원>

▲훌륭한 꼬마의사=맞벌이 부모를 둔
주인공 어린이가 병
번 집안에서 애원동
물들과 병원놀이를
하며 동물환자들의
고민을 들어준다는
이야기, 꼬마 의사선
생님이 동물환자들
에게 내려주는 기발한 처방을 통해 어린
이들의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느낄 수 있다. <크레용 하우스·7천500원>

진시황은 추한 외모 때문에 폭군 됐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온 묘사로 부터 재현된 진시황의 초상(위)과 폭군의 광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진시황릉 병마용(아래).

광기의 제왕학 자오량 지음

황제의 칭호를 맨 처음 사용했던 진시황(BC 259~BC210)은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인 진(秦)나리를 건설,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시행했다. 군현제 도입, 문자·도량형·화폐의 통일, 전국적인 도로망 건설 등을 통해 제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만리장성, 아방궁, 병마용 등 엄청난 규모의 유물이 밀해주듯 포악한 군주로도 이름나 있다. 사상의 통일을 내세워 벌인 분서갱유는 진시황의 폭정을 대표적으로 반영한다.

사납기 때문에 황제가 된 것일까, 아니면 황제가

한 고조 유방·여제 무족천 등
중국 황제 6명의 내면 세계
정신분석학 관점서 들춰보기

왔기 때문에 사나워진 것일까. '광기의 제왕학'은 천하를 호령했던 진시황, 한 고조 유방, 여제 무족천, 명 태조 주원장, 광서제, 부의 등 중국 황제 6명의 내면 세계를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역사학 교수인 저자 자오량은 심리역사학과 발견방법학이라는 새로운 접근으로 이들을 해석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지명과 인물에 대한 각주가 없다는 것.

저자는 이들 6명의 황제에게 주목한 이유는 인격 형성과 사회화 과정, 인성의 발휘 등 모든 심리 학적 영역에서 특수한 전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가장 민감했던 시기에 권좌에 올라 중국 역사의 큰 획을 그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진시황의 성격적 결함이 그의 추한 외모

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을 내린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진시황은 "새기슴에 말안장 모양의 매부리 코, 맡의 눈을 연상케 하는

가늘고 긴 두 눈과 톱 뒤에나온 눈알"을 지녔다. 이 때문에 진시황은 어려서 정신적 좌절을 겪어야 했고 심리발전 과정에 큰 상처가 돼 우울한 인격이라 불리는 특수한 심리형태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한(漢) 나라 건국황제인 유방(BC247~BC195)이 2%의 카리스마가 부족했음에도 황제에 오른 것은 진시황에 놀라워했던 민심 때문이었다. 서민 출신인 유방의 소탈한 얼굴이 그를 황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늄름한 용모와 호탕한 성격을 가진 유방은 주위로부터 '유형' 또는 '유씨'로 불릴 정도의 평범한 '풀부(匹夫)'였다.

저자는 중국 유일의 어황제였던 무족천(624~705)의 카리스마와 갖가지 기상천외한 행동들이 그녀의 성도착적 심리 메커니즘의 결과였다고 단언한다. 또 명(明) 나라 초대황제 주원장(1328~1398)이 군주독재권의 강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실시했던 공포정치는 그의 불우한 유년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청(淸) 나라 11대 황제인 광서제(1871~1908)와 마지막 황제 부의(1906~1967)는 봉건 왕조제제의 붕괴와 급진적 서구화 앞에 국도의 심리적 혼란과 불리적 격변을 겪어야 했던 비운의 군주들이었다. 청조 말의 일련의 사건들은 황제의 심리적 결함과 왕조 사회의 한계가 빚어낸 찌르이라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한스미디어·1만5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외교가와 정치가 오성과 한음

조선 최고의 공직자... 최범서 지음



‘오성과 한음’의 돋독한 우정에 대한 이야기는 위인 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오성은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이며, 한음은 명보(明甫) 이덕행(李德馨)이다.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재기발랄한 죄하고 우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 교운한 시점은 과거를 거쳐 벼슬길에 접어들었을 때다.

‘조선 최고의 공직자’ 다시 쓰는 오성과 한음은 이살, 해학의 주인공으로 만 그려지고 있는 오성과 한음을 역사적 사실에 비춰 외교가와 정치가로 다시 복원한 책이다. 오성과 한음은 선조와 광해군 재임기에 나라를 짊어졌던 명재상이다. 임란의 영웅으로 이순신과 서예(西涯) 유성룡(柳成龍)이 끊히지만, 정작 두 사람은 조명받지 못했다.

이항복은 임진왜란 7년 동안 국방을 맡은 병조판서를 다섯 차례나 역임하고, 원수를 한 번, 체찰사를 두 번이나 맡았다. 이덕행도 병조판서 두 번, 체찰사 두 번, 훈련도감 제조 두 번을 역임했다. <기암기획·1만5천원>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그리스·터키 고대유적 답사 여행기

에게, 영원회귀의 바다 다카시 지음



국내에 ‘사색기행’(2005·청어람미디어 펴냄)으로 잘 알려진 일본 칼럼니스트 다치바나 다카시와 사진주간 ‘포커스’의 보도사진가 스다 신타로의 ‘그리스·터키 고대유적 여행기’가 책으로 나왔다.

‘에게, 영원회귀의 바다’는 다치바나 다카시와 스다 신타로가 1982년 놀아侮부터 가을까지 40일 동안 에게해 인근 고대유적을 답사한 흥작이다.

책은 일본에서 2004년 출간되자마자 다치바나 다카시가 관여했던 ‘록히드재판’(1986년 끝남)으로 인해 20년 이상 늦게 빛을 봤다.

이들은 카르타고에 멸망한 그리스의 손꼽히는 식민도시 시칠리아 섬의 세리네, 죽은 자들의 석관 1천200기가 놓인 네르크로폴리스, 이오니아(현 터키)의 그리스 고대도시 미레투스 등 40일 동안 8천km의 여정을 소화했다. ‘글반, 사진반’인 이 책은 그 자체로 고대문명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여행이다.

<청어람미디어·1만5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 (010) 221-1140, 5210 템 010-622-2532
(부동산 신보증금, 대인동 소방서관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 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협성되어 월세

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
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
포가 4~5칸 정도에 점포

가 여전히 대표적인 상가를 대표
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
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

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기공인중개사

☎ (010) 234-8216 템 010-699-0896
(부동산 신보증금)

상가부지 및 상가부지

총장로 대지 50평 4층건물 26평

총장로 대지 110평 4층 27평

국도 50평 70평 2층 21평

운봉동 중심부도로점 대지 25평 170평

운봉동 중심부도로점 대지